

시인의 시각, 화가의 상상 제주의 속살, 매력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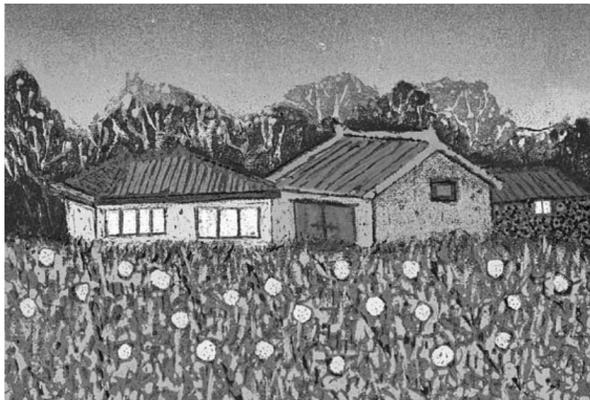
●박노식글·이민 그림...시화집 '제주에 봄' 출간

"오직 시만 쓰고 오직 그림만 그리는 순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책을 낳았습니다. 제주를 슬픔의 섬이고 예술적 상상력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지도 모릅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곳의 아포리즘과 그림이 당신에게 위로가 됐다면 당신과 우리는 한 수평선에 누워서 낮의 흰 구름과 밤의 푸른 별을 함께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계절·시간대별 심상 담아낸 작품 100편 수록

시인의 시각과 화가의 상상이 어우러진 제주도 풍경이 시와 그림으로 펼쳐진다. 박노식 시인과 이민 화가가 펴낸 '제주에 봄' (스타북스)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적, 박물관, 카페 등을 여행하며 두 작가가 쓰고 그린 100편의 글과 그림은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 충분하다. 간결한 글과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림이 실린 이 책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박노식 시인은 "제주에 관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심상을 시로 풀어쓰는 방식으로 작품이 완성됐다"며 "시 한편 그 바다에 흐르는 감정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라고 할 수 있다. 사랑과 이별 등 여러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을 지우려는 고통보다/차라리 그 기억의 고통 속에서/오늘을 살아가는 인내가/당신의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지도 몰라요' '텅 빈 마음은/아주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통증이에요./이럴 땐 가장 쓰라린 일들을 데리고/절벽에 올라 놓아 버려야 해요.' '울지 않아도 계절은 찾아와요./그저 마음을 비우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미끄러지듯 외길을 따라 혼자 걸을 때/가슴에는 이미 새길이나 있을 거예요.' 제목을 따로 붙이지 않은 일련의 시편에는 갖가지 감정이 투영된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민 작 '표선'(사진 위)

이민 작 '수산리 큰동네(감귤집)

시집에는 제주도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비롯해 새벽과 아침, 낮과 저녁, 밤 등 시간대별 풍경이 다채롭다. 노란 물결의 꽃들이 가득한 제주도 봄의 풍경, 해질녘 등대를 배경 삼은 붉은 바닷가, 새벽 하늘과 어우러진 해안가 등 책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그림과 이에 맞는 글귀들이 감성을 자극한다. 시인은 "그날의 날씨가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시적 느낌이

충분한 날에는 글이 잘 써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시집은 올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20여편을 실재 없이 써내려간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시화집이자 일곱 번째 시집인 이 책을 발간한 이후로 당분간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고단함 등에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시를 써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日 시단 등단' 김정훈 전남과학교수, 일본서 시집 출간

"한국적 관점, 日 문학 감성 살려"



일본에 국내 저항 시인을 알리고 국내에 일본 진보 작가를 소개하는 데 몰두해 온 김정훈 전남과학교수(과학교육학과)가 최근 일본에서 시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 시전문지 '시와 사상'으로 등단한 뒤 일본에서 시집 '아들과 함께 보는 서울의 봄'(사진)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관점에서 일본 문학을 연구해오며 느낀 감성을 살려 소외되고 가려진 착취한 부분을 시로 써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그가 집필한 시를 보면 그의 시 경향이 나타난다.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형상화한 시 '암담한 겨울 버티기'다. 한일문제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현 상황과 진정된 한일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시에 담겼다. 김 교수는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여기에 휘둘리는 마스크 그리고 역사교육의 한계 등에서 느끼는 허탈감과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의식하며 썼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암담한 겨울 버티기

열도에서 불어온 매서운 바람이
눈보라를 몰고와 발걸음 묶어놓은
우리의 만남은 어디에서 병행하고 있을까

고드름처럼 얼어붙은 겨울 한복판
뒀산 나무들은 메말라 있고
길가에 핀 동백은 재빛깔을 잃었다

손가락 결기로 새긴 언덕
시들한 상추처럼 허물어지고
가다리다친 애대우이
살얼음이 되어 걸린 가슴

해역을 타고넘는 물결처럼
굴이 치게 외쳐보아도
거대한 파도 속에 떠밀려 파묻히고 말더러

바다 건너 길거리로 나선 이들과 만나
커피잔에 안부라도 실어
건네고 싶은 허기진 시간

한줄기 희미한 햇살이
아침문앞을 서성일때
찬이슬에 입술이라도 댄다면
가다리는 초봄이 빨리 올까

지금은 과거와 현재 사이가 가로놓인
차디찬 그림자가 찾아와 통곡하는 깊은 밤

비스듬히 누운 원위고에서
가날픈 펜이 꿈틀거리다
불어대는 칼바람 소리에 주저앉는다

살을 에는 추위가 폭설을 몰고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 차단하는
우리의 만남은 어디에서 병행하고 있을까

새로 나온 책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정지효 저자 KBS TV 방송작가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던 정지효 작가가 인터뷰에세이로 찾아왔다. 방송과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온 작가는 인터뷰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열 세명의 인터뷰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지혜를 오롯이 전하고 있다. 그가 찾아낸 열세 편의 이야기들을 읽고 나면 흘러가는 내 삶 속에 깔려있는 이야기도 금금해지기 시작한다. /라이프타임·1만5천원

▲떨어지는 것들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박현우 저자 시인은 어느 날 완도 정도리 갯돌을 밟으며 모난 돌과 몽돌의 의미를 상상한다. 험 없이 밀려오고 밀려갔을 시간의 침식 이전까지 몽돌들은 제각각 날카롭거나 울퉁불퉁한 '모'를 가진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였다. 시인에게 '고독'은 타인의 관심이나 눈치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뚜렷이 하는 것을 뜻한다. 무수한 이해관계나 인연으로 뒤얽힌 채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와의 대면을 의미한다. /문학들·1만2천원

▲수만의 문장으로 오는달밤=김종희 저자 꿈꾸는 미학자, 김종희의 감성적 수필집이 출간됐다. 미학자이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미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추론적 강의로 유명하다. 이번 수필집은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녀만의 섬세하고도 담백한 문체가 독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수필집이라 했지만 문화 전반의 감성 산문집이 더 어울릴 듯 하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주제를 달빛처럼 부드럽게 파고드는, 그러나 빠뜨리지 않는 날카로움은 뜨거운 햇살과도 같다. 독자들은 비무장지대의 문장이 자신도 모르게 녹아나는 우려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가마을·1만5천원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야크 드레이션 글, 아너 베스테르다윈 그림, 김영진 옮김 할머니는 치매로 얼마도 페트라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페트라가 노래를 부르자 할머니는 페트라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고 함께 춤추기 시작한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페트라에게 가르쳐 준 노래다. 할머니의 기억 속 남아 있던 그 노래가 초원에 울려 퍼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다음에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자기 아이도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 줄 거라는 페ত্র라의 위도가 기자 안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주니어+K·1만4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암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